

국·외·소·식

☞ 美 FDA, 논란속 새로운 소 항생제 승인 허용할 듯

항생제 내성 강한 '슈퍼버그' 출현 촉진시킬 수 있어 우려

미 식품의약청(FDA)이 일각에서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 논란이 돼온 '세프퀴늄'이라는 소 항생제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월 4일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이 항생제는 세팔로스포름이라는 곰팡이로 만든 '제4세대 세팔로스포린'으로, 어린이들의 중증 위장병이나 뇌수막염 등의 질병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런 항생제를 가축에도 사용할 경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 슈퍼버그를 출현시켜, 비슷한 약을 사람에게 처방해도 약효가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 양국간에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FDA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FDA의 결정이 한국인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포스트에 따르면 이미 질병전문가들은 그동안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항생제 사용에 더 사려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심지어 FDA자문기구인 수의학자문위원회도 작년 9월 이와같은 우려를 지적하며 FDA에 이 항생제를 승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가 이 항생제 승인쪽으로 기울고 있는 배경에 대해 포스트는 FDA내부의 가이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DA의 '의약품 가이드 152'에 따르면 가축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육류식품에서 유발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항생제의 약효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없으면 FDA는 이의 승인을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것. 업계에선 FDA가 새로운 소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관을 밝혀낼 때까지 FDA는 그 약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이 항생제를 개발한 인터벳사는 소의 질병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했다. 하지만 이 질환은 밀집된 농장에서 소를 기르거나 기차에 가득하게 소를 싣고 운송할 때 문제가 되며, 이미 시중에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10여종의 항생제가 있으며 여전히 약효도 있다고 포스트는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 김병수 특파원(bingsoo@yna.co.kr)

2007년 3월 5일

☞ 발가락 26개 가진 뉴질랜드 고양이

통상적으로 고양이들은 발가락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발 하나에 5개씩 달려 있기 때문에 앞 뒤 네 다리를 합치면 모두 20개다.

그러나 뉴질랜드에는 앞다리 발가락이 7개씩 14개, 뒷다리 발가락이 6개씩 12개를 가진 고양이가 있다.

모두 합치면 발가락이 26개나 되는 이 고양이는 6개나 덤으로 가진 발가락 덕분에 다른 고양이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난 장기가 있다.

높은 데 기어오르기와 달리기, 할퀴기 등 고양이들이 발로 하는 모든 기술들이 그것이다.

발가락이 추가로 더 있다는 뜻으로 ‘엑스트라’ 라는 이름이 붙여진 3개월짜리 이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보다 더 많이 할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가족의 정밀 관찰로 정체가 드러났다.

오클랜드에서 이 고양이 키우고 있는 킬렌 제라드는 “사람이 안아주면 할퀴기를 잘 해 같이 놀려면 복싱장갑이라도 끼워줘야 할 정도”라면서 “하도 이상해 발을 잘 살펴봤더니 발가락이 26개였다”고 언론에 밝혔다.

제라드는 “다시 한 번 세어봤으나 틀림없었다”면서 “엑스트라의 어미인 스타는 보통 고양이였으나 스타의 어미는 발가락이 한발에 6개씩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엑스트라가 다른 고양이들과 다른 점은 높은 데 기어오르기를 잘 하고 달리기도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에 있는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엑스트라처럼 발가락을 많이 가진 고양이들이 드문 것은 아니라면서 다지증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다지증 유전자로 인해 발가락이 많아지는 경우도 6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엑스트라처럼 7개를 갖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 방지협회(SPCA)의 교육담당관인 셸리 라이언은 “발가락이 많은 고양이들을 종종 보아왔다”면서 “대개 이런 고양이들은 조용한 편이나 무척 빠르고 높은 곳을 잘 기어 오른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한성 통신원(koh@yna.co.kr)

2007년 2월 25일

☞ 알코올 중독 차단 물질 발견

알코올 의존성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되었다.

미국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NIAAA)의 마커스 헤일리그 박사는 과학전문지 ‘신경과학 저널(Journal of Neuroscience)’ 최신호(3월7일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MTIP라는 합성물질이 알코올 의존성 동물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화학물질인 코르티코트로핀 방출인자(CRF)를 억제해 알코올 섭취욕구를 진정시킨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 BBC 인터넷판이 3월 7일 보도했다.

헤일리그 박사는 CRF는 술을 마신 후 단기간 증가했다가 알코올 의존성이 없는 사람은 1~2일이면 정상수치로 되돌아가지만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 사람은 CRF의 과잉활동이 계속돼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다시 마시게 된다는 사실이 쥐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MTIP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CRF의 활동을 억제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CRF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도 쥐 실험에서 확인되었다고 헤일리그 박사는 밝혔다.

헤일리그 박사는 알코올을 많이 먹이다가 끊고 다시 먹이다 끊는 사이클을 반복해 알코올 의존성

이 생긴 쥐들과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도록 유전조작 된 쥐들에 MTIP를 투여한 결과 두 그룹의 쥐 모두 알코올 섭취량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알코올 섭취욕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코올 의존성이 없는 정상적인 쥐들에 MTIP를 투여했을 때는 알코올에 대한 자연적인 호기심과 알코올 섭취에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헤일리그 박사는 말했다.

헤일리그 박사는 MTIP는 경구투여가 가능하며 충분한 양이 뇌에 도달해 CRF를 활성화시키는 CRF 수용체의 90%를 차단한다고 밝히고 이 물질은 간(肝)과 같은 다른 기관에는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MTIP는 알코올 중독 이외에도 CRF가 활성화되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영국 국립약물중독센터의 밥 패튼 박사는 알코올 중독자는 치료 후에도 10명이면 9명이 재발하며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요법이나 심리요법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MTIP를 임상시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한성간 기자(skhan@yna.co.kr)

2007년 3월 8일

국·내·소·식

☞ 대구서 오는 10월 세계애견산업엑스포

‘2007 대구세계애견산업엑스포’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린다.

3월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그쇼, 캣쇼, 펫(pet) 산업박람회 등이 개별적으로 열리기는 했지만 종합적인 애완동물 관련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급성장하고 있는 애견·애완산업을 대구의 신성장 문화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행사를 계획했다.

엑스포는 세계 국견(國犬)전시관, 국제 프리스비(Frisbee) 대회, 도그쇼, 애견BT 콘퍼런스 등을 포함해 각 문화단체와 연계한 동물·환경·산업 주제의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된다.

대구시는 행사 준비를 위해 이날 한국삽살개보존협회 이사장인 경북대 하지홍 교수와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22명으로 구성된 애견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세퍼드, 마르노이즈 등 유명 견종의 중심지로 동물 매개치료 및 애견숍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과 함께 개 관련 BT연구를 하는 경북대 유전공학과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애견산업과 관련한 대구의 중장기적인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일 기자(leeki@yna.co.kr)

2007년 3월 8일

☞ '두꺼비를 구출하라' 울산시 긴급작전

울산시는 3월 6일 산란 길에 나선 두꺼비가 갇혀 있는 울주군 상북면 양등마을 뒷산 기슭의 시멘트 인공수로에 간이 생태통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기슭의 높이 90cm, 폭 80cm, 길이 500m의 시멘트 수로에 두꺼비들이 갇혀 인근 저수지로 내려가지 못하자 수로 곳곳에 폭 40~50cm의 나무판을 30도 경사로 설치해 두꺼비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산란을 위해 내려오다 배수로에 갇힌 두꺼비들이 안전하게 인근 지곡저수지로 향할 수 있고 여름철에 새끼 두꺼비들이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두꺼비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영구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울산환경연합이나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등과 함께 수시로 수로를 확인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두꺼비들을 구출할 계획이다.

울산환경연합은 지난 달 이곳 인공수로에서 산란을 위해 산에서 내려오다 갇힌 두꺼비 110여마리를 발견하고 시에 생태통로 개설 등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촉구했다.

환경부의 포획금지야생동물로 지정된 두꺼비는 우리나라 양서류 중에서 황소개구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종류로, 주로 3월 중순께부터 산란을 하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20~30일 정도 이른 시기에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나무판으로 만든 임시 통로이지만 설치하자마자 두꺼비들이 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영구 생태통로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항상 수로를 확인해 두꺼비들이 안전하게 산과 저수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진발 기자(sjb@yna.co.kr)

2007년 3월 6일

☞ 경남서 야생동물 관련사범 85명 입건

경남지방경찰청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3개월 간 총기나 올무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 수렵허용 조수 외 포획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56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85명을 검거,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밀렵사범이 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밀렵 목적의 총기휴대자 26명, 기타 밀렵관련 사범 4명 등이었다.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은 모두 92마리로 꿩이나 오리 등 새 종류가 7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고라니와 너구리 12마리, 멧돼지 5마리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경남경찰청은 입건된 85명에게서 텃과 올무 등 불법 수렵도구 103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앞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방환경청이나 밀렵감시단 등과 협조, 밀렵이나 밀거래 등 야생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고준구 기자(rjkoh@yna.co.kr)

2007년 3월 5일

🐾 핑·멧비둘기 줄고 멧돼지 급증

지난해 야생동물 1천147마리 로드킬 수렵 조류인 핑과 멧비둘기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천적이 사라진 멧돼지는 크게 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너구리와 족제비 등 야생동물 1천147마리가 인공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려다 차량과 부딪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 종별 서식밀도 및 개체군 변동실태 조사결과 핑은 1995년 100ha당 25.7마리에서 2006년 12.4마리로 급격히 줄었고 까치와 멧비둘기도 2002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참새는 지난해 100ha당 개체수가 108마리로 2005년 126마리보다 18마리 줄었고 여름철새인 제비는 2000년 100ha당 개체수가 37마리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개체수가 22마리로 감소했다.

참새와 제비는 그간 번식처 및 먹이 감소 등 서식 환경변화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현재의 서식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밀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멧돼지는 1997년 100ha당 2.7마리에서 지난해 4.6마리로 급증했고 고라니는 1997년 2.6마리에서 2003년 6.6마리로 증가한뒤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멧돼지는 이번 조사에서 개체 1마리가 옥수수밭에서 먹이 활동을 벌여 피해를 입힌 사실이 관찰됐으나 행동 반경이 1ha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멧돼지와 고라니는 서식 조건이 향상되고 생태계내 천적이 없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들고양이는 지난해 405개 조사구에서 432마리가 관찰돼 2004년 511마리에 비해 다소 줄었고 너구리는 100ha당 5.3마리로 증가세를 보여 수렵동물로 지정, 개체수를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림에 서식하는 지표종으로 텃새인 쇠딱다구리(100ha당 8.5마리)와 박새(100ha당 29.6마리), 여름철새인 흰배지빠귀(100ha당 7.8마리)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꿩꼬리는 2003년 100ha당 6.2마리에서 지난해 7.5마리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야생동물 로드킬은 지난해 포유류가 16종, 921마리로 가장 많고 조류 23종 177마리, 파충류 7종, 43마리, 양서류 4종 6마리 등으로 가을철에 피해가 가장 컸다.

로드킬 피해 종별로는 너구리 308마리, 족제비 280마리 청설모 146마리, 다람쥐 56마리, 멧토끼 50마리, 까치 49마리, 고라니 41마리, 핑 40마리, 멧비둘기 36마리, 유혈목이 23마리 등이다.

현영복 기자(youngbok@yna.co.kr)

2007년 2월 27일



전 기사 <저작권재(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